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즉시	배포일시	2020. 7. 31.(수) 14:00
MRTC Migration Research & Training Centre 이민정책연구원 Partner Organization of IOM		담당부서	연구교육실
		담 당 자	이창원 연구위원 02)3788-8033

이민정책연구원, "다문화주의: 현재와 미래" 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 개최

□ 이민정책연구원(원장 강동관)은 7월 31일 13시부터 한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원, 건국대학교 이주·사회통합연구소와 함께 "다문화주의: 현재와 미래" 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 장소: 광화문 소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

□ 이번 학술대회는 총 3세션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법제도와 정책, 통계에서 드러난 차별적 용어 사용의 문제를 살펴보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다문화 시대 문학의 모습과 북한이탈주민의 이주경험 문제를 다루었으며, 세 번째 세션에서는 활동가들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로 진행되었다.

□ 첫 번째 세션에서 발표자로 나선 최윤철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외국인이 한국사회의 수요 충족을 위한 수단이 아닌 한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독립된 인격체임을 확인하는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며 국내 이주관련 법률에서 드러나는 외국인 차별적 용어 사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이어 발표한 정기선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객원연구원은 "정부 부처 간

이주민 분류방식과 용어사용이 일관적이지 못하다”며 “이러한 차이가 이주민 현황 파악과 국민적 이해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강동관 이민정책연구원장은 “최근 미국 등 서구사회에서는 제도적 인종차별이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한국이 성숙한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과 정책 등에서 이주민을 제도적으로 차별 또는 배제하는 요소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제거하는 노력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오늘 학술대회가 이러한 노력의 좋은 출발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붙 임. 행사 사진 2부. 끝.

[붙임] 행사 사진



